



글: 송 영 기 <홍보부>

인화와 단결을 바탕으로 한 직원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에 모두가 합심 노력

대구하면 능금의 고장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대구는 또 우리나라 의상의 변천과 혁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다고 할만큼 섬유업의 본산지로서 미인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밖에 한가지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큰 한약재 시장인 약령시장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구에서 우리 화협이 지부사무실을 개설하고 특수건물에 대한 방재와 보험업무를 시작한지도 어언 11년.

지부사무실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가지 중심부를 가로 지른 동성로 대로변 변화가의 태남빌딩 4층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을 찾았을때는 오후 2시가 조금 지니서였다. 직원들은 거의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장하고 없었으나 전화 벨소리만은 쉴새없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이성우(李成雨) 지부장께서 잠시 일손을 놓고 변함없는 표정으로 반가이 맞아주어 한 가족이라는 따스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현재 대구지부의 가족수는 모두 31명으로 업무, 점검, 계약등 3개과로 나누어져 시내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대민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81년 7월 1일자로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관할구역이 확장되는 등 제반 요인으로 특수건물 수는 매년 높은 증가(별표)추세를 보이고 있다. 80년 1천 4백85건이던것이 84년 7월31일현재 총 2천 4백89건으로 연평균 2

백50여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직원수에 비해 점검과 보험업무의 물량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부장을 위시하여 전직원들이 힘심하여 이를 잘 소화시켜 나가고 있다.

별표 연도별 특수건물 증가현황 84. 3.31.현재

연도	80	81	82	83	84 (예상)	비고
점검대상건수	1,485	1,881	2,210	2,414	2,600	
증가건수	172	396	329	204	186	
증가율 %	13.1	26.7	17.5	9.23	7.7	

※ 1981. 7. 1 직할시 승격으로 편입지역 물건증가

더우기 올면서서는 전반적인 섬유업계의 불황과 크고작은 부도사건들이 겹쳐 그 쇼크로 대구지방의 경제사정이 무척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과정에서 있었던 고충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도 그럴것이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본사가 서울에 편중돼 있는 관계로 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설에도 불구하고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에선 특수건물주들이 매우 긍정적이고도 협조적임을 볼 때 그동안 직원들이 벌인 활동성과가 역시 허술하지 않았음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지부에서는 자량이 대단하다.

내민헌옹반을 보면 특수건물소유주들이 점검과 보험업무에 대해 모르거나 의문나는 점을 물어와 금년들어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새마을운동과 인보사업을 위해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직원들이 출신하여 1일 10원 저축하기운동을 벌이는 한편 폐휴지를 모아 기금을 조성, 매년 명절을 기해 대구해육원등 불우이웃을 찾아 선금과 선물을 전달해 오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농번기때면 일손이 부족한 인근농가를 찾아 농촌일손을 도우며가하면 자연보호캠페인을 비롯 거리질서캠페인도 함께벌어 이고장 주민들과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이외 관계 행정및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각구별 민방위 훈련과 임소방화교육에 주기적으로 출강함으로써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굳게 다져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협회업무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도 어느 지부 못지않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지난 83년말 대구직할시가 각 아파트 관리사대로 앞으로 보낸 「화재예방 활동강화」란 세하의 공문과 부구청에서 시장및 상가대표자들에게 보낸 「특수건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통보」라는 세하의 공문에서는 "신체순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사후복구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뿐더러 각 구청 및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특건소유주의 비협조적인 태도완화는 물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李)지부장은 지난 3월 취임이래 조직의 근본이 인화와 단결에 있다고 보고 체육대회 및 생산, 그리고 각종 활동등 직원 상호간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갖는다고 한다. 이는 곧 점검과 보험이라는 이질적인 업무의 간격을 해소하는 한편 각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자 하는데 주력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지부 산악부의 활동은 그 중에서도 관목한만 하다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등반대회에 참가하여 협동과 단결력을 과시했으며 지난 82년 3월에는 대구매일 신문사가 주최한 팔공산등반대회 장년부에 9명이 참가하여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했다.

이를 계기로 이지방에서는 화현의 산악맨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구지부는 특히 아파트 부보촉진을 위한 자체계획을 세워 차장과 각과장을 조장으로 하고 전직원을 4개소로 편성하여 각 구역별로 분장, 지부전체가 캠페인을 벌여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부의 활동영역은 꽤 넓은 편이다. 이웃구미공단에 비롯해서 영천, 안동, 김천, 포항등 주변 소도읍에 이르기까지 협회의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그 결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긍지와 보람속에서 대구지부직원들은 오늘날도 주어질 업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믿음직한 무적의 용사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

**서로 다진 화재예방
서로 웃는 복된생활**